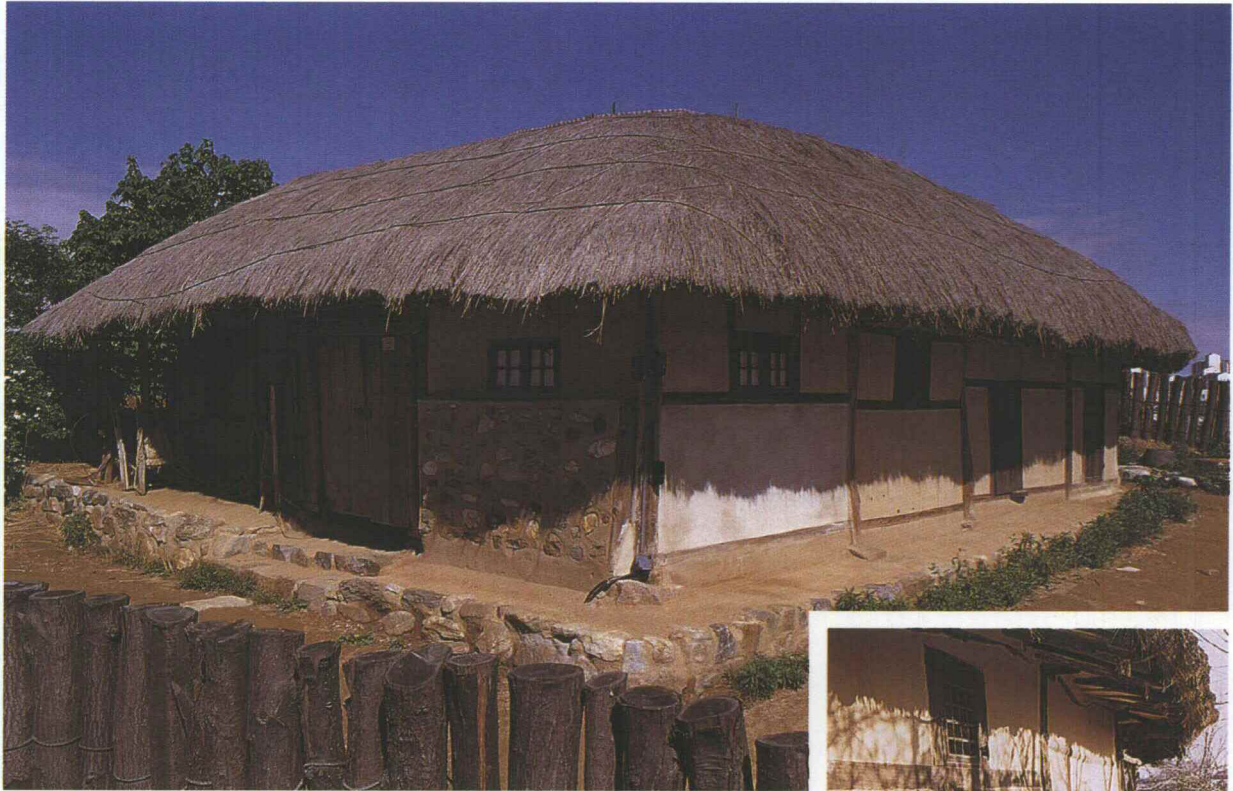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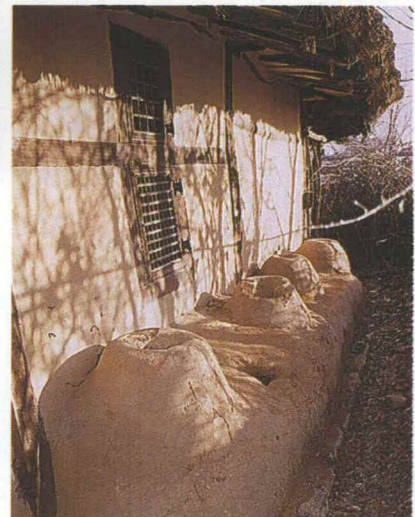


일산 밤가시 초가



- 문화재번호 : 경기도 중요민속자료 제8호
- 연 대 : 약 150년 전
- 면 적 : 약 30평



▲ 굴뚝모습

안내문

정발산 북서쪽 기슭에 위치한 이 초가는 조선 후기 우리 나라 중부 지방의 전통적인 서민 농촌 주택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은 평면 구성의 형식이나 기둥 등 주요 부재의 부식 정도로 미루어 대략 150년 전의 건축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가옥의 주요 목재는 기둥, 대들보, 중방, 문틀, 마루, 서까래 등에 이르기까지 밤나무 재목을 쓴 것이 특징이다. 이는 옛부터 이 마을에 밤나무가 울창했고 가을이면 밤가시가 야산에 산재해 있다는 데서 밤가시, 곧 울동(栗洞)이란 마을 이름이 유래될 정도로, 밤은 이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자 나무 또한 주요 생활용품이었던 것이다.

이 집은 서북쪽이 언덕에 기대어 동남쪽으로 향해 앉았으며 그 형태는 ㄱ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현존하지 않는 행랑채가 맞은편에 대칭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ㄴ자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한 칸의 좁은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각각 한 칸 반씩의 안방과 부엌, 왼쪽으로 한 칸의 건넌방을 이룬 간단한 구조로 되었으며 안마당 밖의 헛간은 중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안채의 구조는 막돌로 된 주춧돌 위에 네모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네 개 걸쳐 소위 평사량(平四樑) 기구를 짰는데, 이것은 초가 지붕에서 부재를 절약하면서 지붕 틀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기둥에 도끼나 자귀로 거칠게 다듬은 흔적이 드러나고, 서까래도 불규칙한 배열을 보여 서민 가옥의 특징인 소박하면서도 튼튼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 집은 특별한 담장이 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여 년 이상의 풍상을 겪으면서도 기둥, 도리, 쪽마루 등이 아직껏 생생하여 조선 후기 경기도 지방의 영세성을 띤 농촌 가옥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 초가의 마루, 안방 모습

밤가시 초가의 특징과 구조

이 초가집은 일산 신도시 내에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로 일명 밤가시 초가라 불리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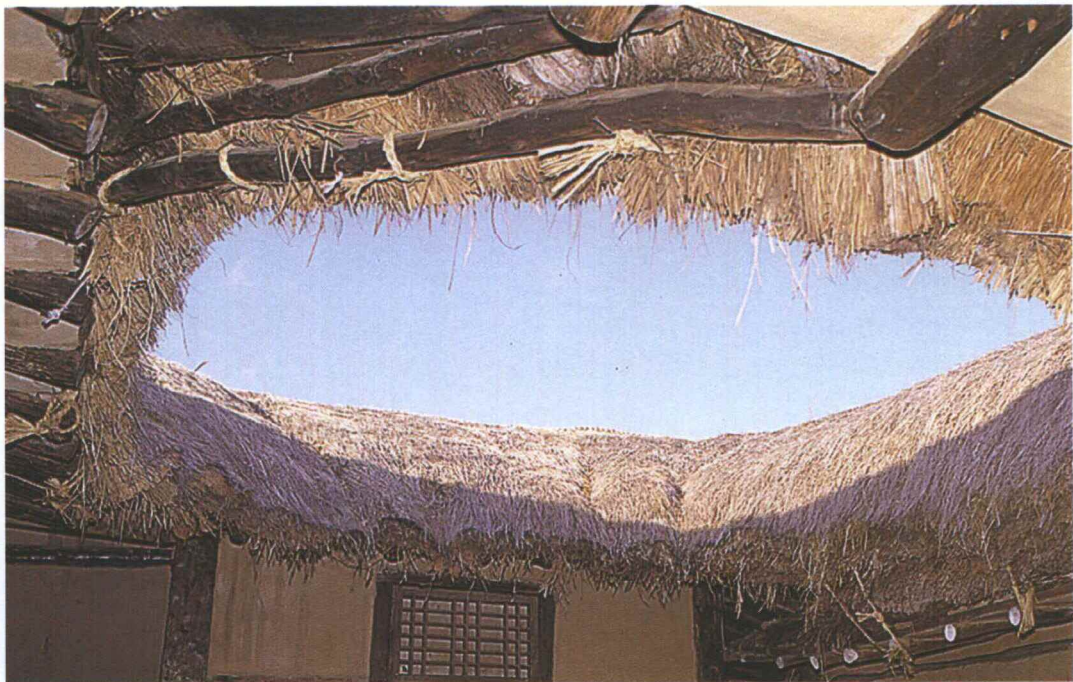
밤가시는 조선시대부터 불려지고 있는 이 지역의 고유지명으로 조선조 중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곳에 ‘울악 부곡’이 있던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밤가시 마을이 밤을 특산물로 생산하여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던 행정구역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밤가시라는 마을 이름과 고개, 초가의 명칭이 이러한 옛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랜 유적으로는 조선조 전기에 우의정을 지낸 단산부원군 이무의 아들인 이영득의 묘소이다. 이 묘는 90년대 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옮겨져 현존하지는 않고 있다.

밤가시 초가의 집 안과 밖은 대부분 밤나무로 되어 있다. 또한 집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울타리, 담장도 모두 밤나무와 개나리, 엄나무 등 재래종 나무로 되어 있다.

이중 출입문과 그 주변은 밤나무 밑동을 베어 세로로 세워 꽃아 밤나무 울타리를 만들었고 문도 싸리나무문 대신에 밤나무 가지를 엮어 만들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이곳에는 아름다운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여 참으로 보기 좋은



▲ 초가의 또아리 지붕

모습이었다. 집의 기둥, 서까래 등은 도끼를 주 연장으로 사용해 최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다. 방이나 광, 헛간 등에는 굵은 곡선의 목재들을 그대로 사용해 부드러운 곡선미가 돋보인다. 목재와 기둥 사이에는 돌과 황토를 섞어 벽을 쳤는데 모두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썼다. 흙벽 속에는 옥수수대, 수숫대, 갈대 등으로 내부 벽채를 만드는데 이때 새기술이나 첩으로 엮어 그 견고함을 유지하였다. 대문 좌측에 위치한 헛간은 지붕의 내부 장재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기둥도 밤나무의 거지와 기둥을 잘라 만든 간이움집의 모습이다. 기둥 아래의 주춧돌은 산의 곳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판과일 계통의 막돌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자연돌 그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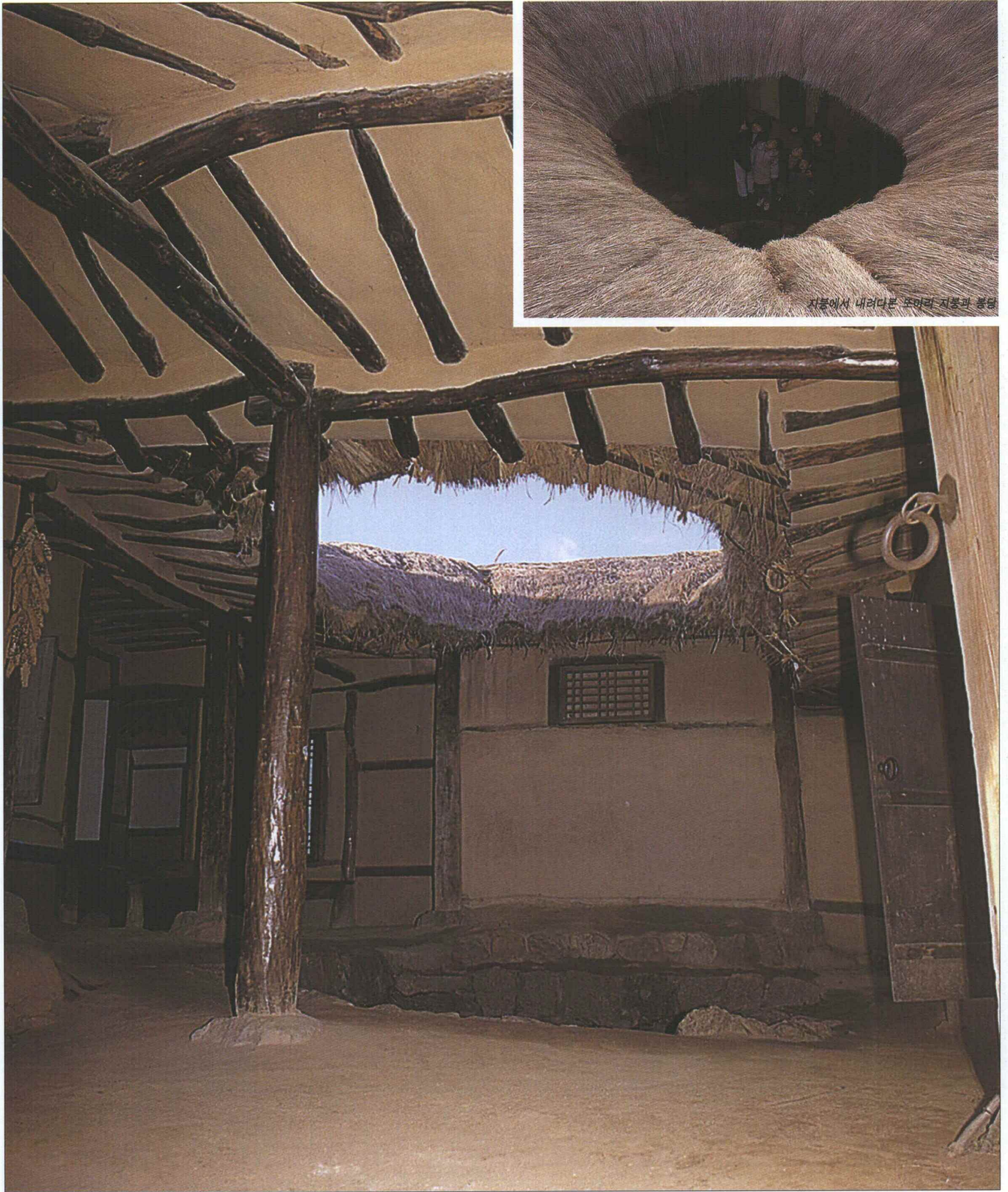
밤나무 기둥에는 세월이 오래되어 일부가 썩어지면 썩은 부분만 도려내어 그만큼의 나무를 깎아 다시 맞추어 둔 모습을 이 초기에서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나무의 틈이나 흠을 통해 빗물이 들어와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밤가시 초기에는 또한 민속, 풍습적으로도 옛 양식이 잘 남아 있는데 주로 복을 기원하고 액막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울타리문의 입구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귀면(모개비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한다. 또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 위에는 가시나무 가지 2개가 서로 묶여져 있다. 이 나무를 일명 '엄나무'라 하는데 집안의 복이 빠져나가는 것과 액을 막기 위한 우리 옛 사람들의 기원이 담겨져 있다. 일년의 농사일이 끝난 뒤 이곳에서는 10월 상달에 집안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이 엄나무는 새로 바꾸거나 깨끗이 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밤가시 초기집의 큰 특징과 아름다움은 또아리(튼 \square 자형) 모양의 지붕과 우물 같은 모양의 봉당에 있다. 현존하고 있는 초기집 중 이 또아리 모양의 지붕은 극히 드물게 남아 있는 양식이다. 하늘의 또아리에 걸맞게 땅(마당)은 봉당으로 좌·우 원형모습으로 자연적 돌을 돌려쳐 원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본래 이 봉당에는 채송화, 봉숭아 등 우리의 토종꽃과 풀 등이 서식했다. 이 식물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물의 영양분으로 자라곤 했다. 봉당을 가운데에 배치한 이 초기집의 비경은 또아리 지붕과 원형 봉당에서 이루어진다. 이 집의 아름다운 비경은 다음과 같다.



▲ 초기 입구의 귀면



지붕에서 내려다본 조마의 지붕과 풍경

시간에 따른 해시계의 모습

밤가시 초가의 지붕에 깃드는 햇빛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 모습에 따라 집의 시간을 알게 된다. 아침에는 봉당의 서쪽인 건넌방 아래로 빛이 들고 점차 해가 퍼지면서 정오경에는 봉당의 한가운데에 둥근 원형으로 들어차게 된다. 끝으로 저녁에 이르러서는 봉당 동쪽의 벽에 붉은 노을과 함께 타원형의 그림자 빛이 깃들게 된다. 이후 해가 완전히 지면서 밤가시 초가의 해시계는 사라진다.

여름철의 장마와 함께 내리는 원형 폭포수

초여름의 장마철이 시작되면 밤가시 초가에는 큰 원형의 폭포수가 생긴다. 초가 지붕에서 내린 빗물이 지붕을 타고 또아리 지붕구멍으로 흘러 봉당으로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집에 내린 빗물은 모두 봉당 아래에 만들어진 빗물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봉당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 물이 고이지 않게 되어 있다. 또 겨울철이면 눈 녹은 물이 얼어 큰 고드름을 만들기도 한다.

보름달 원형의 보름달빛 그림자

정월 대보름날 둥근 보름달이 뜨고 달빛이 또아리 초가 지붕을 통하여 초가집 속으로 환하게 비추지면 이곳에는 달빛에 의한 둥근 모양의 달빛 그림자가 봉당에 그대로 비춰져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 보여진다. 이때 낮에 내린 빗물 일부가 봉당의 꽃들에 비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

설경의 밤가시 초가

요즘과 같은 한겨울에 함박눈이 내려 밤가시 초가집의 봉당과 지붕에는 희고 눈부신 흰 눈이 쌓인다. 봉당의 흰 눈과 지붕의 흰 눈은 집안 다른 곳의 황토흙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희게 보이는데 정겨운 흙 냄새와 함께 겨울의 보기 드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지붕과 서까래, 이엉 속에는 자연히 만들어진 10여 군데의 참새집 구멍이 있다. 집과 지붕 곳곳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과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수십여 마리의 참새와 까치가 살고 있다. 또한 울타리와 담장, 장독대 주변에는 영경귀, 소리쟁이 등 잡초와 야생화가 자라고 있어 정겨움과 고향 내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집의 외부 모습에서는 초가집의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봄에는 울타리 사이와 인근에 있는 개나리꽃과 나무의 새싹, 여름에는 빗물과 나무의 푸른 줄기, 그리고 가을에는 나뭇잎의 단풍과 낙엽, 겨울에는 설경으로 시시각각 그 광경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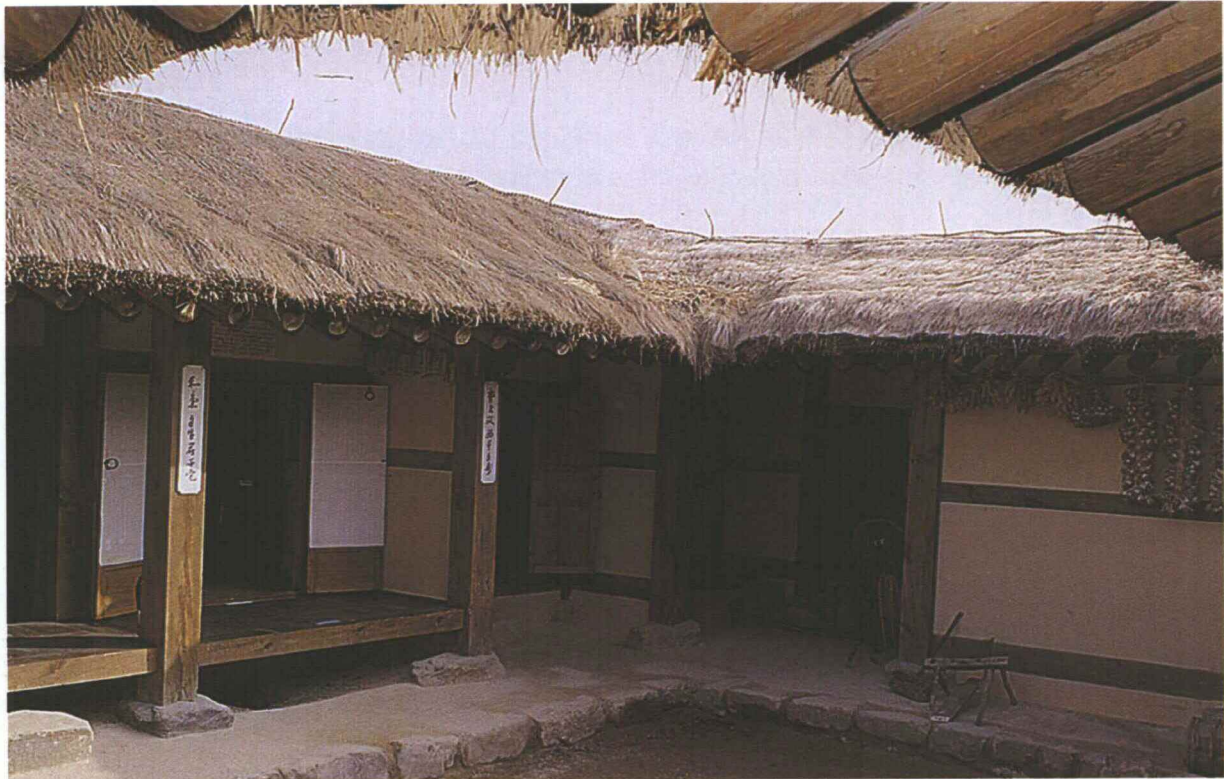
밤가시 초가집은 신도시 개발로부터 유일하게 보존된 전통가옥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남겨진 문화유산이다. 집의 위치도 옛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어 당시 마을의 위치나 높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점이 되고 있다. APT와 서양식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곳 일산에서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곳 밤가시 초가는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다.

주(住)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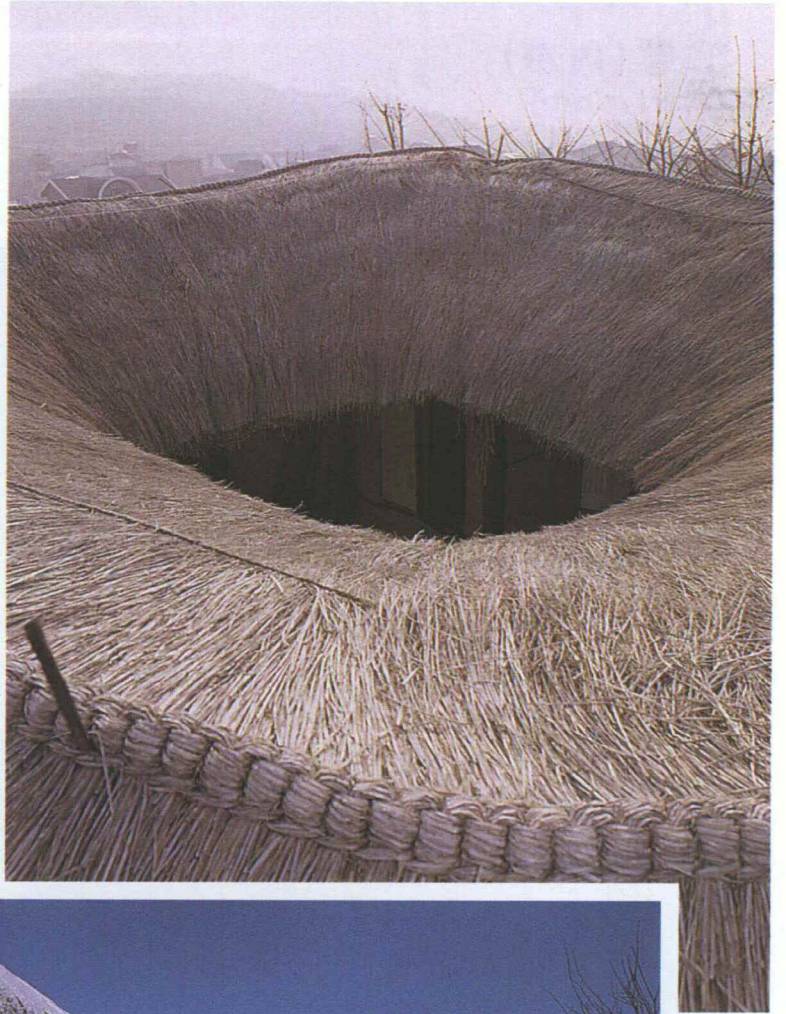
집의 모양은 우선 각 지방의 기후조건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우리 나라 선사시대의 집 자리 가운데서 집 아랫돌을 땅 속에 묻는 움막집 자리는 추운 지방에, 그리고 원두막 같은 집 자리는 더운 지방에 많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산간 지방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귀틀집도 아주 오래 전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점차 바뀌게 되었다. 기원전 4세기경 농업생활의 정착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난방 장치인 방구들이 발명되면서부터 우리 나라 한옥의 기본적인 구조가 잡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집은 기후환경과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일자집, 고평집, 미음자집 등의 여러 형태로 나뉘어졌다. 이와 같이 집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주거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선사시대에는 취침과 취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목축과 이동생활에 의한 자연에 크게 의존했던 것에 비해 본격적인 정착생활과 온돌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주거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하게 되었다.

각 신분에 의해 주거공간이 마련되고 남녀의 활동에 의해 구분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다른 공간과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응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갖게 되었다. 집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의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민속전시관 내부 모습



초가집의 지붕과 ▶



▲ 초가의 겨울 설경